

Vol. **2023-39**
2023. 06. 01.

정책특독

ISSN 2951-3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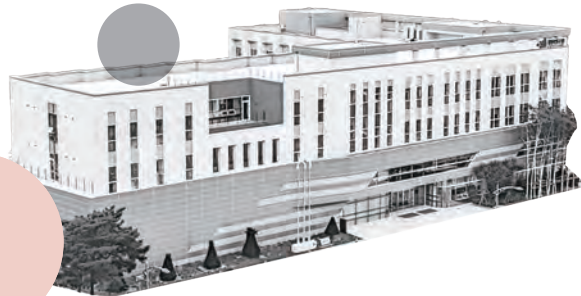
사회조사통계로 본 강원도의 특징

지경배 선임연구위원

033-250-1357 jkb@gi.re.kr

김원석 연구원

033-250-1970 kimone@gi.re.kr



GI 강원연구원

사회조사통계로 본 강원도의 특징

강원도 사회조사는 도민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 등을 파악하기 2014년부터 실시해 왔다. 조사가구수는 15,800개로 가구원을 포함하면 28,000명에 달한다. 격년 주기로 하여 주제를 바꿔가며 트렌드를 분석하는데, 2022년에는 건강, 가족과 가구, 사회통합, 지역산업, 안전, 환경, 기본 등 7개 부문 37개 항목을 조사하였다.

금번 조사에서 나타난 큰 특징은 청년층과 장노년층간 뚜렷한 세대차를 확인한 것이다. 대인신뢰, 지역소속감, 사회적 지원, 소수집단 수용, 환경과 성장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항목에 걸쳐서 연령별로 인식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세대공감형 新경제사회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한 보건복지분야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자녀보육에서 부모직접 보육이 급감하고, 신종전염병 불안감도 대폭 감소 추세를 보여 강원도도 포스트 코로나시대로 진입함을 확인하였다. 다만, 도민의 건강평가가 전국 평균보다 매우 낮고, 도민의 ⅓가 자살예방 등 상담전화를 모르고 있어 (정신)건강지원사업을 도민밀착형으로 촘촘하게 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지금까지 축적된 강원도 사회조사결과는 각각 연도별 개별 데이터로 제공되고 있어 정밀한 추계분석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강원도 사회조사 데이터는 강원도민의 사회의식과 변동을 알 수 있는 추계 데이터로서 많은 정보적 가치를 담고 있다. 표준화/DB화/타조사와의 연동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책특독’은 강원도 미래가치의 현재화를 위해 시의성 있고 실용적인 정책발굴 및 아이디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강원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하실 경우에는 「정책특독」 및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1

강원도 사회조사란?¹⁾

I 도민 삶의 질과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의식조사

- 도민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 등을 파악하여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2014년 9월 제1회 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실시, 격년 주기로 하여 부문별로 주제를 바꿔가며 각 부문에 대한 트렌드 분석

I 강원도내 15,800가구를 대상으로 표본가구내 만 13세 이상 가구원 조사

- 2022년 8월 18일~9월 5일까지 층화추출법에 의해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인터넷 조사 및 자기기입식 병행
- 강원도는 지표개발, 문항설정 등 기획-총괄, 시군은 설문조사 및 코딩, 강원연구원은 자료처리 및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통계청에서는 DB 구축 등 기술을 지원

<강원도 사회조사 수행체계>



I 2022년에는 건강, 가족과 가구, 사회통합 등 7개 부문 37개 항목 조사

- 건강, 가족과 가구, 사회통합, 지역산업, 안전, 환경, 기본 등 7개 부문 37개 항목 조사
- 매년 특성항목 조사수요에 따라 추가로 포함되며 시군에서도 특성항목을 별도로 조사

<2022년 사회조사 부문과 조사항목>

부문	조사항목
건강 (5)	주관적 건강평가, 의료서비스 만족도, 의료시설 접근성, 흡연율 및 음주율, 정신건강 서비스 인지도
가족과 가구 (4)	부모 부양 책임자, 미취학 자녀의 보육방법 및 만족도, 가족관계별 만족도, 배우자의 경제활동상태
사회통합 (12)	일반인에 대한 신뢰, 사회적 지원, 공동체 의식, 주관적 귀속계층, 삶에 대한 만족감과 정서경험, 지역민으로서의 지역정체성,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늘려야 할 공공시설, 노인복지 필요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자원봉사활동, 후원(기부)
지역산업 (2)	지역경제 활성화 우선 정책, 온라인 쇼핑 동향
안전 (2)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안전 환경에 대한 평가
환경 (2)	환경과 성장의 우선순위, 환경 체감도
기본 (10)	성별, 생년월일, 가구주와의 관계, 교육정도, 혼인상태, 경제활동 상태 및 직업, 종사상 지위, 거처 종류, 주거 점유형태, 가구 월평균 소득

1) 본 고는 '2022년 강원도의 사회지표' 보고서 내용중 이슈별로 요약 발췌하여 재정리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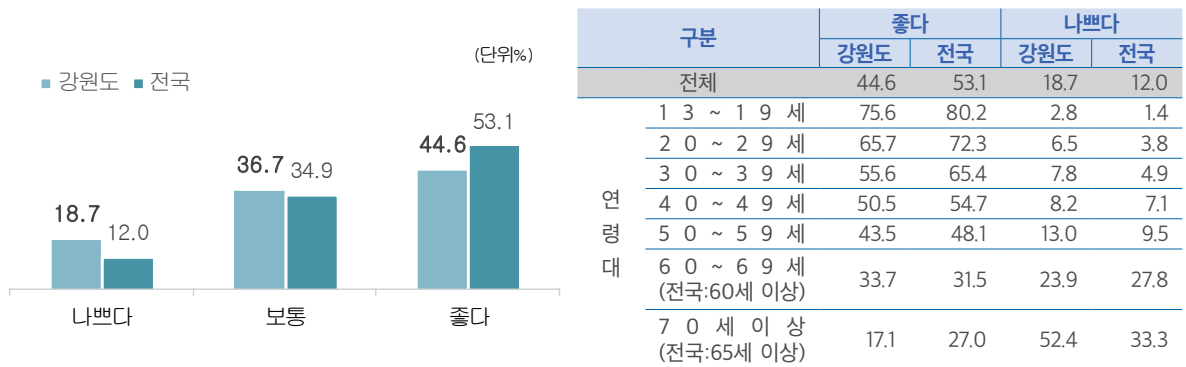
02

도민 건강인식과 가족·가구 행태변화

도민 건강인식 : '좋다' 44.6%, 전국 평균보다 8.5% 낮아

- 도민들의 자신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좋다' 44.6%로, 전국 평균(53.1%)보다 낮음
 - 연령대별로도 전국평균보다 균일하게 낮은 추세를 보여 연령변수(고령화)보다는 도내 의료인프라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의료기관 만족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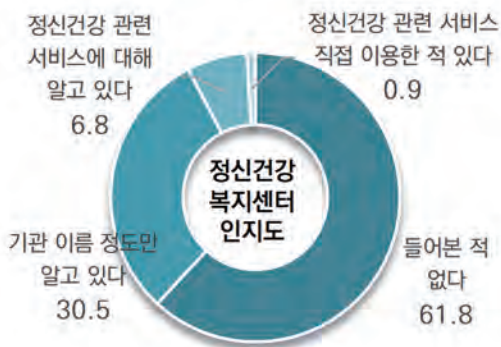
<주관적 건강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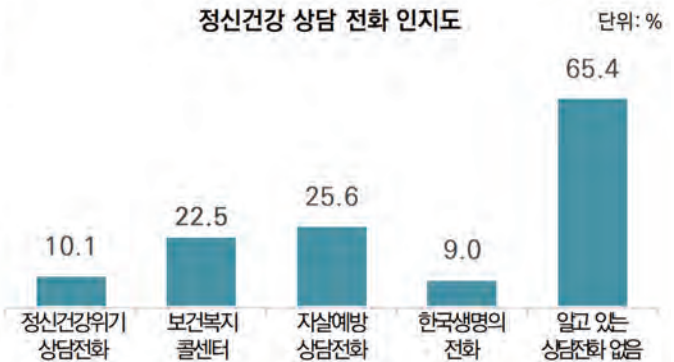
정신건강 복지센터 인지도는 38.2%, '상담전화' 모르는 도민 65.4%

- 거주지의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대해 알고 있는 도민은 38.2%이며, 그 가운데 30.5%는 이름만 아는 수준
- '정신건강 상담전화'를 모르는 응답자가 65.4%로 높은 가운데, '자살예방 상담전화'(25.6%), '보건복지 콜센터'(22.5%) 등의 순임
 - 특히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모든 상담 전화의 인지도가 낮게 나타남

<정신건강 복지센터 인지도>



<정신건강 상담전화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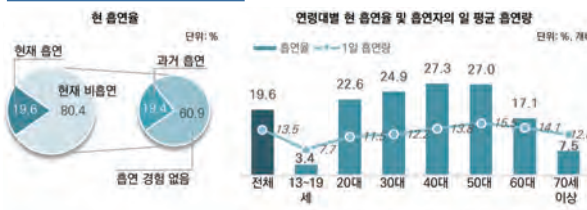




13세 이상 도민흡연율 19.6%, 연간 1잔 이상 음주율 57%

- 전자담배를 포함한 도내 13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은 19.6%, 일평균 13.5개비 흡연
 - 전혀 담배를 피워보지 않은 도민 60.9%, 금연한 도민 19.4%임
 - 20대에 크게 증가하여 50대를 정점으로 흡연율 감소
- 지난 1년 1잔 이상 음주율은 57%, 음주자 10명 중 4명은 주 1회 이상 음주
 - 지난 1년 한번도 술마시지 않은 도민은 24.2%, 금주한 도민은 18.7%임
 - 음주자 비중은 20~40대가 높지만, 음주 빈도는 50대 이상에서 높음

<도민 흡연율과 흡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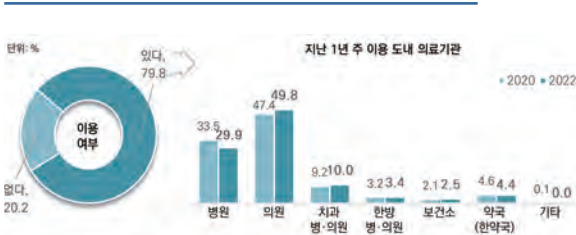
<도민 음주율과 음주량>



의료기관 이용 도민 79.8%로 '의원'을 가장 많이 이용, 만족도는 전국평균보다 낮음

- 지난 1년 도내 의료기관 이용자는 79.8%, 주 이용 의료기관은 '의원' 49.8%, '병원' 29.9%, 「치과병·의원」 10% 순임
- 도내 의료기관별 만족도는 한방병·의원이 57.6%로 가장 높은 가운데, 모든 의료기관에 걸쳐서 전국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도내 의료기관 이용 경험 및 주 이용 의료기관>



<의료기관별 만족도>

구분	만족		
	강원도	전국	
전체	48.6	-	
의료기관별	병 원	49.4	64.1
	의 원	47.0	60.6
	치 과 병 · 의 원	50.0	61.2
	한 방 병 · 의 원	57.6	62.0
	보 건 소	54.2	56.4
	약 국 (한 약 국)	48.1	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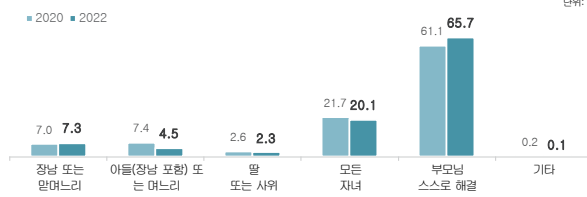


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 6.6%에 불과, 부모 생활비는 '스스로 해결' 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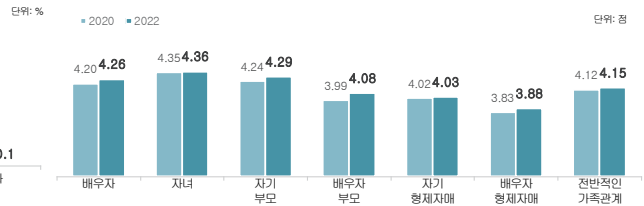
- 부모님과 동거 비율은 6.6%로 매우 낮고, 생활비도 '부모님 스스로 해결'이 과반수 이상
- 부모와 동거비율은 2020년 7.4%→2022년 6.6%로 감소, 부모 생활비 '스스로 해결'은 매년 증가 추세

-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는 4.15점, 자녀 만족도가 가장 높고, 2020년 대비 모든 가족관계 만족도 상승

<생활비 지원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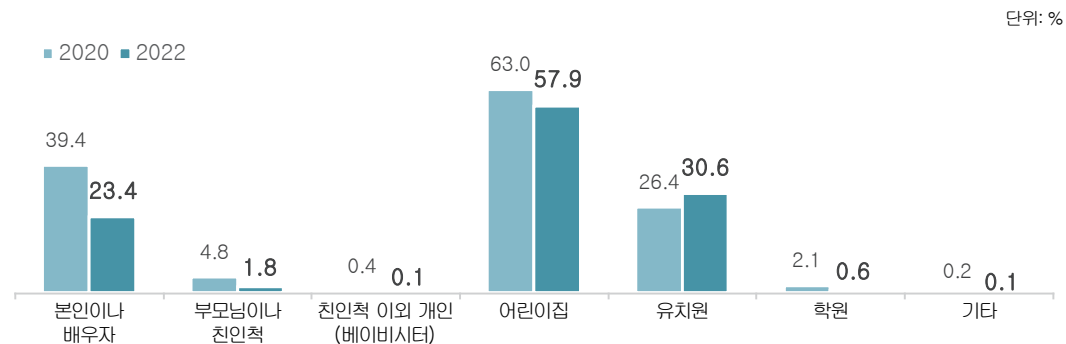
<가족대상별 가족관계 만족도>



미취학 자녀보육은 '본인/배우자' 직접보육이 2020년 대비 크게 감소

- 미취학 자녀 보육 방법은 '어린이집' 57.9%, '유치원' 30.6%, '본인/배우자' 23.4% 순
- 2020년 대비 '본인/배우자' 등 부모 직접보육이 현저히 감소하고 '유치원' 보육 비율은 크게 증가
☞ 부모 직접보육이 급감한 것은 코로나19 이후 보육시설 이용 제한조치 해제로 인한 영향으로 추측

<미취학 자녀 보육방법>





03

사회통합 및 안전·환경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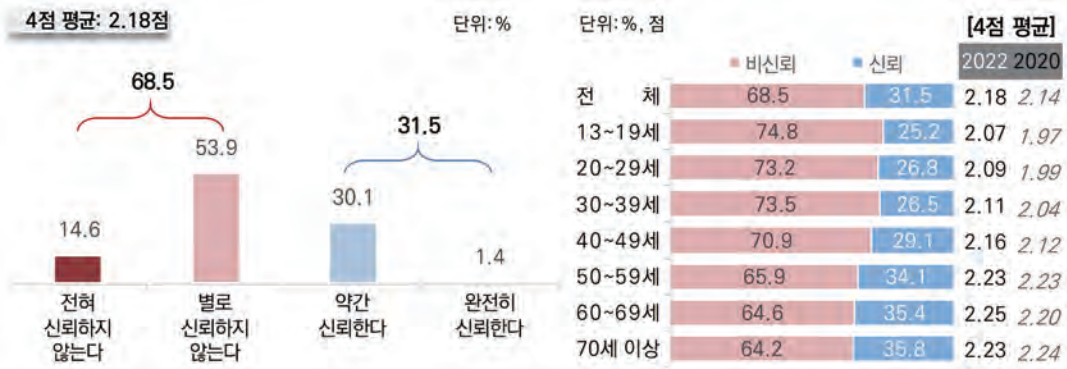
I 대인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낮고, 특히 젊은층에서 현저히 낮음

● 일반인(타인)에 대해 “신뢰한다” 31.5%, “신뢰하지 않는다” 68.5%로 국민의 대인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낮음

- 특히, 청(소)년층에서 신뢰도가 현저히 낮고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

☞ 청(소)년층과 장(노)년층간 대인 신뢰도 차이가 뚜렷히 나타남

<일반인에 대한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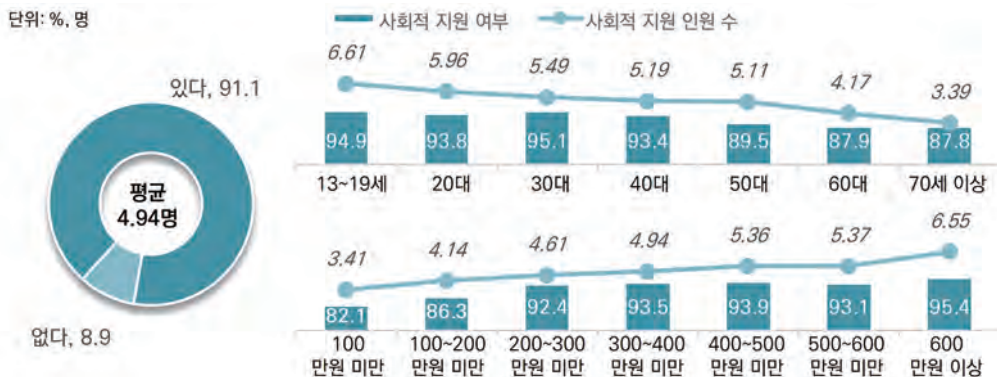
I 국민 91.1% 사회적 지원자²⁾ 있지만, 연령과 소득에 따라 뚜렷한 차이

● 국민의 91.1%가 사회적 지원자가 있고, 평균 4.94명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

- 연령이 높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사회적 지원자 보유율과 지원 인원수가 모두 감소하는 경향

- 특히 60세 이상,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취약계층에서 현저히 낮음

<사회적 지원자 보유 여부 및 지원자 수>



2) 사회적 지원자 :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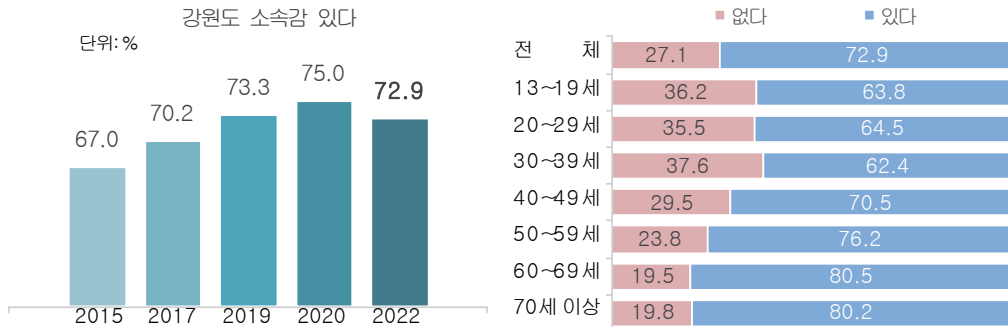


강원도 '소속감 있다' 72.9%, 세대간 현격한 인식차름 보임

강원도민들의 지역정체성은 '소속감 있다'가 72.9%로 2020년 대비 다소 감소

- 강원도 소속감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22년 감소
-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 특히, 청(소)년층과 장(노)년층간 현격한 인식차를 보임

<지역민으로서의 지역정체성(소속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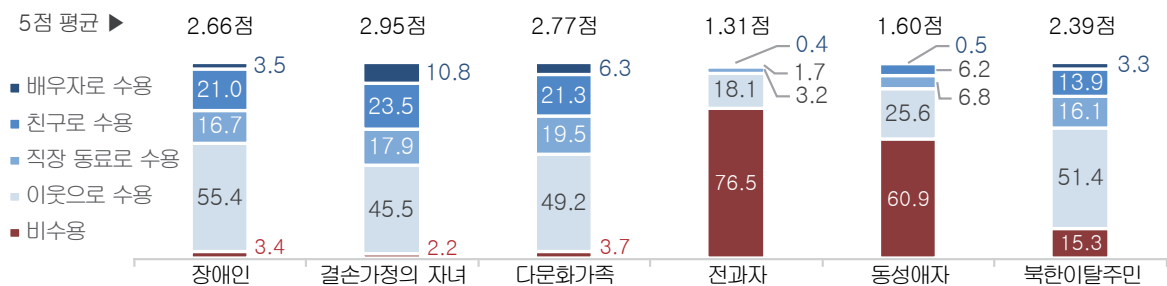


소수집단 수용도는 결혼가정 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동성애자, 전과자 순

소수집단 중 결혼가정 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은 이웃 또는 직장 동료로 수용이 가능하지만, 전과자와 동성애자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

-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수집단 수용도가 낮으며, 2020년 대비 약간 증가

<소수집단에 대한 수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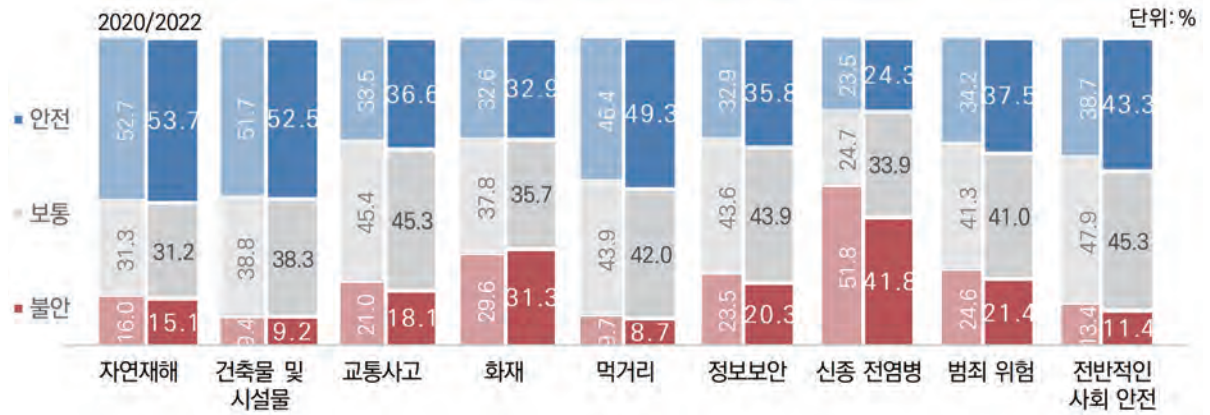


구분	전체	장애인	결혼가정 자녀	다문화 가족	전과자	동성애자	북한이탈주민	
2020	2.23	2.61	2.89	2.72	1.30	1.55	2.30	
2022	2.28	2.66	2.95	2.77	1.31	1.60	2.39	
연령별	13 ~ 19세	2.47	2.71	3.22	3.01	1.33	1.94	2.61
	20 ~ 29세	2.59	2.86	3.45	3.13	1.33	2.10	2.70
	30 ~ 39세	2.49	2.84	3.30	3.04	1.33	1.89	2.53
	40 ~ 49세	2.31	2.69	2.97	2.81	1.35	1.63	2.42
	50 ~ 59세	2.21	2.61	2.80	2.68	1.36	1.49	2.33
	60 ~ 69세	2.12	2.56	2.72	2.58	1.30	1.34	2.24
	70세 이상	2.05	2.50	2.65	2.50	1.23	1.27	2.16

사회안전평가 '안전하다' 43.3%, '신종 감염병'과 '화재'에 대한 불안 높아

- 전반적인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는 '안전' 43.3%, '불안' 11.4%로 2020년 대비 다소 상승
 - '신종 전염병'과 '화재'에 대한 불안이 가장 높지만, '신종 전염병'의 경우, 2020년 대비 10%p 감소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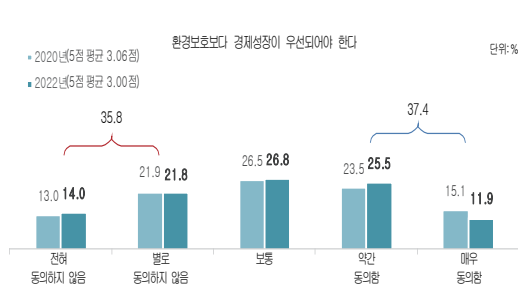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환경보호'보다 '경제성장' 요구가 다소 우세, 세대간 인식차 큼

- '환경보호보다 경제성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 37.4%, '비동의' 35.8%로, 경제성장 우선 의견이 약간 우세
 - 40대 이하는 '환경보호' 우선에, 50대 이상은 '경제성장' 우선에 동의하는 경향으로 세대간 인식차 큼

<환경과 성장의 우선순위>



구분	계	비동의 (환경우선)	보통	동의 (성장우선)	5점 평균
연령 13 ~ 19 세	100.0	41.7	37.4	21.0	2.68
20 ~ 29 세	100.0	35.6	28.4	36.0	2.98
30 ~ 39 세	100.0	42.4	26.2	31.4	2.83
40 ~ 49 세	100.0	41.3	27.5	31.2	2.81
50 ~ 59 세	100.0	36.5	23.5	40.0	3.02
60 ~ 69 세	100.0	30.2	23.9	45.9	3.21
70 세 이상	100.0	29.2	28.3	42.5	3.16



04

사회조사결과의 함의와 활용

I 강원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 “세대공감형 新경제사회정책’ 검토

- 다양한 항목에 걸쳐서 청년층과 장노년층간 뚜렷한 인식차 확인, 특히 2022년 강원도 소속감 하락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대인신뢰, 지역소속감, 사회적 지원, 소수집단 수용, 환경과 성장에 대한 인식 등 항목에 걸쳐서 연령별 인식차 뚜렷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수립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 사회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세대공감형 新경제사회정책’ 검토 필요

I 포스트 코로나시대 ‘도민 (정신)건강복지 안전망’ 구축

- 자녀보육에서 부모직접 보육이 급감하고 신종전염병에 불안감 대폭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강원도도 포스트 코로나시대로 진입 확인
- 다만, 도민의 건강평가가 전국 평균보다 매우 낮고, 도민의 2/3가 자살예방 등 상담전화를 모르고 있어 도민밀착형 (정신)건강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촘촘한 정책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할것임

I 사회지표 결과의 활용, 표준화/DB화를 통해 성과지표 설정 및 체계적 관리

- 지금까지 축적된 강원도 사회조사결과는 각각 연도별 개별 데이터로 제공되고 있어 보다 정밀한 추계분석에 한계
 - 문항 및 항목 재조정, 가중치 재점검, 인구통계변수 재배치 등 표준화 작업 필요
- 강원도 사회조사 데이터는 강원도민의 사회인식과 변동을 알 수 있는 추계 데이터로서 표준화 작업 및 DB화를 통해 적극적 정보활용 및 체계적 관리 필요
 - 사회경제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목표 설정 및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와의 연동 등을 통해 보다 정밀한 추계분석과 정책설계가 가능